저는 전공했던 해양과학과 연구실에서 매트랩을 이요한 해양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였고, 이후 데이터 분석가로써의 장래를 꿈꾸고 데이터분석 국비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db에 대해 학습하고 erd설계과정에 대해 실습하면서 단순히 남이 설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db를 설계하고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백엔드 개발자로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보행자의 걸음속도에 맞춰 목적지까지의 신호대기시간을 고려한 도보네비게이션 시스템 등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로드뷰, 거리뷰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지도 서비스가 한단계 진화했던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앞서 수강했던 국비교육에서 5개월 넘는 기간동안 단 하루도 지각없이 8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긴 사피 교육기간동안 sw개발자를 희망하는 동료들과 함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함을 일상 속에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작하는 개발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임현진: 해양데이터 분석 어떤걸 했는지 / 데이터 분석 국비교육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erd가 무엇인지/